

[윤리와 사상]

1	④	2	①	3	②	4	⑤	5	⑤
6	①	7	②	8	②	9	④	10	③
11	③	12	④	13	②	14	④	15	③
16	④	17	⑤	18	①	19	⑤	20	③

1. [출제의도] 인간의 특성 파악하기

제시문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삶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활동인 놀이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이를 통해 유희적 존재로서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입장 비교하기

(가)는 자유주의, (나)는 공동체주의 입장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을 독립적 존재로 보며 개인의 자유 실현과 개인적 선의 실현을 주장한다. 반면 공동체주의는 개인을 관계적 존재로 보며 공동선의 실현을 중시한다.

3. [출제의도] 불교 사상 이해하기

불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청정한 불성(佛性)이며, 인생의 현실적인 모습이 괴로움이고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과 탐욕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연기(緣起)에 근거하여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깨달아 자비를 베풀고, 만물의 무상(無常)함을 자각하여 탐욕을 버리며, 무명(無明)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것을 강조한다.

4. [출제의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소크라테스, 같은 플라톤이다. 소크라테스는 덕은 곧 지식이므로, 인간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영혼의 수련을 통해 보편적 진리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면 유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각 계층이 맡은 직분에 충실하며, 지혜의 덕을 갖춘 철인(哲人)이 통치하는 국가를 이상 국가로 보았다.

5. [출제의도]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이해하기

같은 벤담, 같은 밀이다. 벤담은 쾌락에는 양적 차이만 있다고 보아, 쾌락의 양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반면 밀은 쾌락에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아, 정신적 쾌락을 감각적 쾌락보다 더 높은 수준의 쾌락으로 보았다. 하지만 벤담과 밀은 모두 공리주의자로서 행위를 통해 얻은 결과를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6. [출제의도] 공자에 대한 노자의 비판 이해하기

같은 공자, 같은 노자이다. 노자는 공자가 강조한 인(仁)과 예(禮)와 같은 인위적인 덕목들이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무위자연(無爲自然)을 강조하였다.

7. [출제의도] 공자의 입장 이해하기

공자는 부모에 대한 효(孝)와 형제 간의 우애[悌]를 인(仁)을 실천하는 근본으로 보았다. 공자는 내면적 사랑인 인을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외부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공자는 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나를 미루어 타인의 처지를 헤아리고 배려하는 서(恕)를 강조하였다.

8. [출제의도] 흄과 칸트의 사상적 입장 비교하기

같은 흄, 같은 칸트이다. 흄은 감정이 도덕 판단의

중요한 요인이고,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며 공감(共感)을 중시하였다. 반면 칸트는 도덕적 행위는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선한 선의지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의무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9. [출제의도] 애덤 스미스와 케인스의 자본주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애덤 스미스, 같은 케인스이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다면,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 추구를 극대화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보았다. 반면 케인스는 시장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와 케인스 모두 자본주의 사상가로서 자유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창의성 발현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0. [출제의도] 쇼펜하우어와 사르트르 사상의 공통점 파악하기

같은 쇼펜하우어, 같은 사르트르이다. 쇼펜하우어는 생철학자로서 생명, 의지, 충동 등 삶의 역동성을 강조하였다.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인간 실존을 중시하며 주체적 선택을 통해 자신을 형성해갈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쇼펜하우어와 사르트르는 근대 이성주의를 비판하고 개인의 현실적이고 주관적인 삶의 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1.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이해하기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면서도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善)에 관한 지식이 있어도 의지가 부족하여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스마트폰 사용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를 기르라고 조언할 것이다.

12.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주희, 같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성즉리(性卽理), 사물에 대한 이치[理]의 궁구, 선지후행(先知後行)을 주장한 반면 왕수인은 심즉리(心卽理), 치양지(致良知),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다.

13. [출제의도] 아퀴나스와 스피노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아퀴나스, 같은 스피노자이다.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신앙과 이성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스피노자는 신은 곧 세계이며, 인간이 이성을 통해 자연의 인과 법칙에 따른 필연적 질서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 [출제의도] 마르크스주의와 민주 사회주의 이해하기

(가)는 마르크스주의, (나)는 민주 사회주의이다. 마르크스주의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 혁명에 의해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붕괴되고, 생산 수단이 공유되는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고 보았다. 민주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폭력 혁명에 반대하고, 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 사회 개혁 등의 민주적 방법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민주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부분적인 사적 소유를 인정하였다.

15. [출제의도] 이이, 이황, 정약용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이이, 같은 이황, 병은 정약용이다.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한 것으로 보며 기발이승(氣發理乘)을 주장하였다. 이황은 사단은 이가 발한 것으로, 칠정은 기가 발한 것으로 보며 이기호발(理氣互發)을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인간의 성(性)을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기호(嗜好)로 파악하고, 덕(德)은 인간의 마음에 선천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실천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갑, 을, 병 모두 사단을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16. [출제의도] 에피쿠로스학과와 스토아학파의 공통점 파악하기

에피쿠로스학과는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에서 벗어난 평온한 상태[ataraxia]를 강조한 반면 스토아학파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념이 없는 평정한 마음 상태[apatheia]를 주장하였다. 그런데 두 사상 모두 행복의 실현을 위해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7. [출제의도] 홉스와 로크의 공통점 파악하기

같은 홉스, 같은 로크이다. 홉스와 로크는 사회 계약론자로서 국가를 개인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로 보았다.

18. [출제의도] 듀이의 실용주의 이해하기

제시문은 실용주의 사상가인 듀이의 글이다. 듀이는 도덕이나 윤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 이해하기

그림의 이야기는 장자의 글이다. 장자는 시비(是非), 선악(善惡), 자타(自他), 미추(美醜) 등의 분별은 무의미하다고 보았으며, 좌망(坐忘)과 심제(心齋)를 통해 분별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정신적 절대 자유의 경지를 추구하였다. 또한 일체의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사물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20. [출제의도] 배려 윤리의 특징 이해하기

신문 칼럼 내용의 현대 서양 사상가는 길리건이다. 길리건은 타인에 대한 보살핌, 상호 의존성과 유대감 등을 중시하는 배려 윤리를 주장하였다. 길리건은 기존 남성 중심의 정의 윤리가 공정성, 권리와 규칙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비판하고, 진정한 도덕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합리적 판단 능력만큼 배려를 강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